

광주예술의전당, 연말 특별공연...20일 광주공연마루
김영길·이정식·황승욱 명인·창작국악단 '도드리' 협연



황승욱(왼쪽)·김영길 명인

'명인 협연의 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다

육십 간의 마흔 두번째인 '을사년(乙巳年)'이 목전에 다가왔다. 지혜를 상징하는 뱀과 번영의 푸른 색이 모인 '청사의 해'를 맞이하며 저마다 새해 희망에 부풀어 있는 요즘이다. 연말연시에는 고즈넉한 전통예술의 운치를 즐기며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보는 것이 어떨까.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이 2024 광주상설 연말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을 오는 20일 오후 7시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민로3)에서 연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길, 이정식, 황승욱 명인과 (사)창작국악단 도드리가 국악 협연을 통해 새해 희망을 전하는 자리다.

먼저 가야금병창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로 흥을 돋운다. 흥보의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던 제비가 본국에 돌아가 그간 있던 사정을 제비국 왕에게 아뢰고, 보은의 박씨를 물어오는 사설을 노래로 엮었다.

연주는 전남대 국악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 황승욱 예술단 단장으로 있는 황승욱 명인이 맡는다. 전남 완도 출신인 황 명인은 가야금병창전집 '판소리, 단가, 민요'를 출간했으며 경주신라문화재 전국국악제전에서 대통령상(2001)을 수상한 바 있다.

'새납과 버구춤의 향연'은 타악 반주에 버구춤의 역동적인 춤사위와 비승(애인이 보이는 특유의 동작이나 표정)가 도드라지는 작품이다. 전남지역 해안에서 연행되던 풍물놀이를 서한우 명인이 무대화했으며 김동혁의 춤사위에 실린다.

김영길 명인이 들려주는 박종선류 아쟁 협주곡 '금당'도 울려 퍼진다. 번다에서 밀려 오는 잔잔한 파도의 모습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형상화한 곡으로 장엄한 우주·계면조가 중심을 이룬다.

국립창극단 기악부, 국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단원을 역임한 김 명인은 제8회 KBS 국악대경연 종합대상, 2013년 프랑크 아카데미 샤를크로 월드 뮤직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9호 박종선류 아쟁산조 이수자이며 서울대, 단국대, 동국대 등에 출강.

이어 색소폰 협주곡 '고구려의 혼'은 웅장한 타악기를 활용해 고구려의 진취적 기상을 표현한다. 전남 무가나 호남우도농악에 사용되는 동살풀이장단에 맞춰 연주하며, 이번에는 색소폰 협연으로 편성해 동서양 비트유소스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색소폰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종교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수원대(실용음악과) 주임교수로 있는 이정식이 맡을 예정이다. CBS 재즈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이씨는 그룹 'Asaan spirits', '아시아 올스타' 멤버, '신관용 콰르텟', '김강섭 악단' 단원 등으로 있다.

중독성 있는 장단 위에 광주의 역사를 그린 창작국악가요 '아리랑 광주'도 레퍼토리에 있다. 우리나라 사계를 모티브로 궁거리장단과 서양음악을 섞은 국악가요 '아름다운 나라'도 전통의 신명을 더한다.

대미를 장식하는 곡은 장새납협주곡 '열풍'이다. 태평소를 개량해 만든 북한악기 장새납은 음량이 크고 풍부해 독주악기로도 자주 쓰인다. 규경훈 협연에 광주에서 28년째 활동하고 있는 (사)창작국악단 도드리가 함께하며 연출·지휘는 김재섭.

광주상설공연 이영희 담당자는 "연말 특별 공연으로 지역 출신의 아쟁연주가 김영길, 광주시 무형문화재 황승욱, 전남 합평 출신의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광주예술의전당이 '명인 협연의 밤'을 20일 공연마루에서 펼친다. 장새납 연주자 규경훈. <광주상설 제공>

세 명 예술가가 호흡을 맞춘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공연이 관객들에게 '송구영신'의 의미를 환기하고 음악을 통한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4세 이상).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을 위한 드로잉'

윤남웅 개인전, 2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바람에도 색과 냄새가 있을까. 아니 바람에도 얼굴과 같은 형태가 있을까.

윤남웅 작가의 작품을 보고 나면 무정형의 공기 입자인 바람에도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람에도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인식하게 된다.

윤남웅 작가의 '바람을 위한 드로잉'전이 오는 21일까지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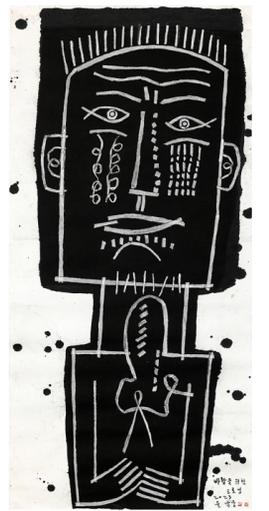
진도 출신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가는 현재 진도에 머물며 창작을 하고 있다. 작가는 꽃상여에서 모티브를 얻어 화려한 색채와 해학적인 그림들을 선사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진도에서 작업한 단색화를 선보인다. 한지 위에 수묵 기법으로 작업한 신작들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의 내면적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바람을 위한 드로잉'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바람을 맞은 사람 얼굴을 표현한 것도 같고, 바람의 형상이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는 작가의 심상을 투영한 것도 같다. 관객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관점과 상징으로 바람을 사유하고 정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작가는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을 내면과 접목해 이미지화했다. 한지의 질감과 수묵의 번짐은 바람의 속성을 오롯이 담아냈음을 보여준다. 자연의 바람보다 내면에서 발하는 바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초대전을 기획한 정현기 대표는 "전시



'바람을 위한 드로잉'

는 2015년 이후 9년만에 열리는 개인전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작품을 선보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바람을 위한 드로잉"은 계절과도 부합되는 주제라 더욱 친밀하게 다가온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화를 전공한 윤 작가는 90년대까지 색채가 무거운 풍속화로 수묵의 맛을 묵직하면서도 자유로운 이야기로 구현해 온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기행도'



'식영정-광주호에서 송강 정철을 보다'

담백함과 우아함 '화첩에 무등을 담다'

광주 사람들에게 무등산이 지니는 의미는 각별하다. 여러 의미로 확장되고 환기될 만큼 무등산의 장소성은 그 스펙트럼이 넓다.

어머니의 품 같은 아늑한 산, 의기와 근기가 배어 있는 산, 역사의 상흔을 묵묵히 지켜보며 치유해온 산 등 저마다 무등산에 대해 갖는 의미는 깊고 소중하다.

수묵으로 구현한 조양희 작가의 무등산은 정겨우면서도 담백하다. 등급이 없을 만큼 귀한 의미를 담은 것처럼 화폭은 편안함과 우아한 미를 발한다.

오는 29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조양희 개인전 '화첩에 무등을 담다'전은 막과

조양희 전, 29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붓, 물성을 극대화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지에 수묵담채로 표현한 '무등기행도'는 무등의 자태와 속살 등을 세세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품에 안겨 절경과 정취를 즐기는 이들의 심상까지도 오롯이 전해줄 만큼 기갑다. 무등의 의미처럼 높낮이보다 품에 안긴 숲과 나무, 기암괴석 등 존재를 알려오는 다양한 객체들을 볼 수 있다.

작가는 "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이 세우지 않고 바닥에 펼쳐서 작업하며 아무리 큰 그림이라도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수묵의 느낌을 바로 표현하려 했

다"며 "사생작업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까지도 어떻게 수습하고 완성할 것인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달 밝은 밤 특유의 운치가 깃든 '규봉암의 밤', 가을날 만추의 쓸쓸함과 적요를 그린 '환벽담의 가을'은 발목의 효과가 잘 이미지화된 작품이다.

한편 조 작가는 광주예고를 거쳐 홍익대 미대 동양학과, 일반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화첩에 이야기를 담다' 등 개인전을 비롯해 신목회 정기전 및 국제교류전 등 단체전, 한·미·일 교류전, 해외전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다. 현재 조선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안에 날아온 부산갈매기' 속 한 장면.

<인문360 제공>

'독립영화' 인문학적 메시지 전하다

한국문예위, 18일까지 '2024 인문다큐 영화제 in 광주'

독립영화들은 한 편에 30분 남짓 리넨타임으로 가볍게 즐기기에 좋지만, 그 속에 담긴 인문학적 사유는 깊다. '숯품' 영상과 '스내 무비'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점에 인문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독립영화'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4 인문다큐 영화제 in 광주'를 18일까지 광주독립극장에서 진행 중이다. 인문다큐영상 공모에 선정된 작품 10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숨 쉬기 위해 숨을 참고 바다에 들어가는 해녀들의 삶을 다룬 '물질'을 상영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을 소개하는 '신안에 날아온 부산갈매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4호 경기 송서/울창 보유자 이석기의 삶을 조명하는 '선비들의 랩, 송서 울창'도 같은 시간 만날 수 있다.

"다정 레스토랑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비롯해 총 세 작품은 오후 4시부터 관객들을 찾아온

다. 금석문을 탁본하는 이의 여정을 따라가는 영화 '돌을 품은 종이, 시간을 훑치는 장서가들', 이주민 자녀들의 분투기를 조명한 '라운더스' "세계소년소녀합창단" 도 스크린에 걸린다.

끝으로 오후 6시부터 한국 사회 논쟁거리인 '제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애치리마를 종손택'을 필두로 '우리는 마지막 광부다', '인싸보다 약사, 동래야류 두드리며 어울리다', '조선짜스' '근대공간x근대가요프로젝트'가 준비돼 있다.

문제를 이해한 문화정책관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를 읽어내는 '다큐멘터리'가 시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인문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화처 무료, 영화제 종료 뒤 인문360 누리집에서도 상영.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제3회 창작희곡공모', 이난영 작가 '소녀들' 당선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원광연·극단)은 '제3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으로 최근 이난영(사진) 희곡작가의 '소녀들'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낭독극 형태로 제작, 내년도 극단 기획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상금 1000만원).

극단은 지역을 다룬 이야기를 발굴하려 지난 7월~10월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3작품이 응모했으며 불의와 강압적인 시대에 항거했던 여성사를 조명할 '소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소녀들'은 일제강점기 친일파 부친을 둔 형제들이 서로 갈등하는 내용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모티브 삼았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이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했던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 선정 배경에서 "극의 구성 자체가 탄탄해 서사 전달력이 좋았고, 인물을 형상화하는 역량이 우수했다"며 "실제로 공연할 때 공간 창출이 용이한 구성이 돋보였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의 또한 잘 형상화했다"고 언급했다.

201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일등금인간'으로 데뷔한 이 작가는 전국창작희곡공모 금상, 전국연극제 대상 등을 수상했다. 올해는 대전창작희곡공모에 '접견'으로 우수상을 받았으며 극단 앙상블과 함께



'안락한 유품 정리사'를 상연했다.

이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광주학생운동의 중심에서 있던 '소녀들'은 광주여고 독서모임 '소녀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작품이 주목하는 부분은 학생운동의 발발과 계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진실에 눈을 뜨는 과정 그 자체"라고 했다.

한편 극단은 지난 창작희곡 공모를 통해 세월호참사 등을 소재로 한 '섬 옆의 섬', 광주 양림동의 서사를 조명한 '양림' 등을 선보인 바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